

불자 세상보기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만약 부처님이 '착하게 살면 돈을 많이 번다' 라고만 말씀하셨으면 나는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은 '나쁜 놈들도 돈을 번다' 고 말씀하셨다. 탐욕에 젖어 무슨 일인데 서슴치 않고 하는 이 세상을 직시하고 계신 것이다.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했던 옥시도 나쁜 짓으로 돈을 많이 벌다가 들켰다. 제품의 잘못을 알았을 때 즉시 시정을 했어야 하는데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심지어 연구보고서 조작까지 한 아주 못된 기업이다.

기업이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첫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윤리적이여야 한다. 사회전체가 썩어 있는데 기업이 윤리경영을 할리 만무하다. 사회전체가 썩어 있는데 기업에게만 윤리경영을 요구한다는 것은 가능

한 일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이다. 기업과 사회는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의 연기사상으로 본다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윤리적인 것과 기업의 윤리경영은 별개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사회가 윤리적이니 기업이 윤리적이고 기업이 윤리적이니 사회가 윤리적이다.'

둘째 최고책임자가 윤리적인 모범적 행위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연기사상으로 표현하자면 '사장이 윤리적이니 직원이 윤리적이고 직원이 윤리적이니 사장이 윤리적이다.' 사장이 윤리적이니 직원이 저절로 윤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장의 모범은 윤리경영의 필요조건이다.

윤리경영을 위해 눈앞의 전시효과에만 급급한 처방을 내놓지 않았으면 행위에 분노하더라도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근거하여 지혜로운 처방을 추구해야 한다. 길게 보아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분노의 대상이 '옥시' 를 넘어 좀 더 넓어져야 한다.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애경,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옥시' 에만 초

점을 맞추는 것도 문제다. 우리는 초점을 '옥시' 에서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다른 대기업으로 넓혀야 하고 다시 초점을 기업전체의 윤리경영에서 사회전체의 윤리로 넓혀야 한다.

사회전체의 윤리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결국 아무 노력도 안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윤리경영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몇 십 년이 되었는지 한 번 살펴볼 일이다. 매번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전체의 윤리를 다시 되짚어본다면 세상은 확실히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너무나 많은 인과연으로 얽혀 있어서 한두가지 처방으로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옥시' 의 행태도 불교적 관점에서 한 번 풀어보자. 세상이 문제고 리더가 문제다. 결국 윤리경영은 정치문제이기도 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회전체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리더의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윤리경영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놀랍게도 부처님이 출가자의 윤리를 위해 교단을 운영하신 방법

과 매우 유사하다. 출가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부처님은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어기면 처벌하셨다. 경전에는 깨달은 수행자들이 매우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깨달은 출가자도 모두 예외없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부처님은 윤리규정을 제정한 뒤에 교육을 시켰고 감시와 처벌을 중시했다. 사장부터 끊임없는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사회체계가 처벌이 참으로 중요하다. 부처님은 출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한 뒤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정보완했다.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인 윤리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이미 지킬 수 없는 규정을 고루하게 요구하다보면 사회가 이중적이 되고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보아 타당한 윤리를 정착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사회전체의 윤리수준이 올라간다. 사회전체의 윤리와 기업의 윤리경영은 별개가 아니고 연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인 것이다.

社說

이웃종교의 훈훈한 화합 메시지

5월 14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비광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해 나루신 불기 2560년이다. 올해의 봉축 표어는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이다.

그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를 서원한 만큼 이웃종교에서도 예년보다 더 많이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불자들에게 전해 훈훈함을 주었다. 로마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장루이토랑 추기경)는 "부처님오신날은 붓다의 탄생과 대가, 입멸을 기념하는 날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과 국가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길 바란다" 고 기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중생 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져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기원한다"며 "부처님께서 설교하신 자비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이 울려 퍼져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한

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서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길을 밝혀주셨다"며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시기다.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화합과 상생이 가득한 세상을 바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종파를 떠나 부처님오신날만큼은 모든 종교인들이 평화와 상생이 가득하기를 바랐다. 배려와 관용의 마음을 갖는다면 종교인 사이에 불화는 물론 사회 갈등의 씨앗을 처음부터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교인부터 열린 마음이 요청된다. 나와 내 형제만이 아닌 이웃을 위한 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일 것이다.

서울시, 무분별한 강남 개발 안된다

서울시가 강남 일대를 개발하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일명 '한국판 라데팡스' 설립을 추진한다. 시민의 편리성과 한류 세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봉은사를 비롯한 강남 일대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뒤여 있다. 우선적으로 조계종과 봉은사가 주장하는 한전지주 반환 문제다. 박정희 정권으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진된 봉은사 토지 매입으로 불교는 많은 재산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을 개발하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불교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범용 스님이 5월 9일 필의한 것처럼 서울시의 개발 사업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배제한 것은 물론 안전성도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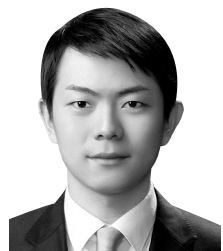
범용 스님은 약 25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에서 △철학과 테마가 부재 △현대차 GBC에 지나친 배려 △지질 등 건조물의 안전 △역사와 인문 가치 부재 △교통안 중대, 미래성 부재로 원점서 재검토 필요 등 5개항의 문제를 질의했다.

또한, 스님에 따르면 강북과 달리 강남의 지하 기반암은 '연암(Soft Rock)'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이뤄진 강남 개발에서도 대규모의 매립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하 6층 구조의 세계 유례없는 환승센터 개발은 여러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서울시가 강남 지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한류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인문·역사가 가미되어야 한다. 출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불교계의 '고언(苦言)'을 서울시가 경청하길 바란다.

기자 칼럼

'연등회 글로벌화 되려면'



노덕현 취재부 기자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7~8일 서울 조계사를 중심으로 종로와 광화문 등 서울 일대에는 연등회가 펼쳐졌다. 올해 서울에서 열린 연등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4년의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된 분위기가 일소되고, 5월 초순의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돼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3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과 불자들이 이번 연등회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연등회에서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그동안 제등행렬 관람이나 연등 만들기 체험 등 일부 행사 참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등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초청행사 등 불교계 안팎의 다양한 협조

와 지원이 있었다. 연등회보존회는 예년의 40개국 보다 9개국이 더 늘어난 49개국에서 온 75명의 청년들과 한국인 청년 75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들은 7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연등회 준비를 비롯해 플래시몹, SNS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사전 홍보도 진행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불교 뿐만 아니라 태국 스리랑카 네팔 몽골 미얀마 등 세계 각국 대표단도 참여해 연등회를 보다 풍성하게 했다. 제등행렬에 다양한 등을 제작하고 각국 전통의상을 입고 참여한 모습에서 연등회가 글로벌 문화축제로 거듭났음을 느끼게 했다. 이어 8일 인사동과 조계사 일대에서 열린 문화마당에서도 국제불교교녀가 인기를 끌었다. 태국불교 대표단의 무에타이 시범과 네팔과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시연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움도 남는다.

가장 먼저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전문적인 안내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

었다. 탐골공원에 위치한 연등회 중앙행사장을 제외하고는 장엄등과 연등을 설명하는 안내가 없었다. 중앙행사장에 외국인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던 이유도 영문해설을 듣기 위해서기 때문으로 보였다. 연등회 자체 평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장엄등에 영문 안내와 안내 방송 등을 행진 구간 곳곳에서 틀어준다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연등회를 즐기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인사들이 연등회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이번 연등회에는 세계미인대회 중 하나인 '슈퍼모델트트브르더월드' 참가자들이 직접 등을 만들어 들고 참가했다. 미녀들의 행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불자로 유명한 배우들이나 국내 KPOP 스타들도 함께 연등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더욱 이들의 모습에 관심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일반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서포터즈와

별개로 유명인사를 연등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끝으로 연등회 회향한마당에서는 흥겨운 춤사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하이 라이트 노래는 올해도 2012년 나온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다. 물론 싸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가수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 되어가는 연등회임을 고려해 적어도 회향한마당에서는 현대화된 찬불가와 함께 최신 가요와 팝 등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연등회에는 해가 갈수록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장엄등과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 행렬 동참자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다른 불교 국가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제등행렬이 있지만, 우리처럼 규모가 크거나 화려하고 다양한 장엄등이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세계인들의 어울림한마당으로 연등회를 만들기 위해 불교계 안팎의 총지를 모을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 (편집국, 광고국) and Website info (웹사이트, 실시간 뉴스, 쇼핑몰)

Table with 2 columns: Modern Buddhism (현대불교) and Local Branches (지사안내)

구독신청: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4-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dvertisement for Buddhist products including candles, incense, and LED lights with prices and descriptions.

Advertisement for Buddhist products with a large image of a lotus flower and a list of items with prices.